

가정상담

2003

12

통권 244호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족정책 - 부부평등과 자녀 노인의 복지

4 • 0 달의 메시지

5 • 기획 여성음주문제 심포지엄
여성의 알코올 중독, 무엇이 문제인가?

9 • 특별기고 호주제
호주제에 관한 논의자료

12 • 소식 - 호주제폐지운동

13 • 칼럼 결혼과 인생(2)

14 •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15 • 인터넷 상담

6 • 상담소 소식

17 • 지부한마당

18 • 지부 소식

19 • 상담통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법원 지정 가정보호사건
행위자 상담 수탁기관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780-568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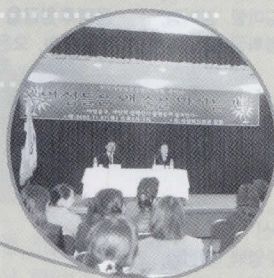
<http://www.lawhome.or.kr>

상담
안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구조기관으로 가난하고
법률을 잘 모르는 분을 위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가정생활에 필요한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서
전문상담원과 변호사들이
상담, 화해 · 조정, 무료대서,
무료변론까지 봉사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간

월~금 : 오전 10시 ~ 오후 5시
야간상담 : 월요일 오후 6시 ~ 9시



가족

MBC 다큐멘터리 가족 제작팀 지음
북하우스, 2003년 발행



가족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가족에게서 위로를 받는다 또한 살아가면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으며 깊은 절망을 느끼는 것도 가족에게서 이다

가족구성원들을 그 관계에 있어서 서로에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가 가족 간의 사랑과 증오 그리고 화해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의 삶을 이어가도록 하는가

텔레비전 프로그램 '인터뷰 다큐멘터리 <가족>' 제작팀이 두 달 동안 8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여 그들 중 열 아홉 가정의 다양한 갈등과 화해를 담아 책으로 출간하였다 이 책은 가족이라는 주제를 사회제도적 측면을 배제하고 원초적 관계인 어머니와 딸, 아버지과 아들 그리고 남편과 아내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의 생생하고도 진솔한 고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딸 일곱을 낳아 희생적으로 키워 결혼을 시킨 후에도 딸들을 열심히 돌봐주지만 못내 아들이 없다는 것이 평생 한이 되는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 자식을 키우는 일보다 자신의 일에 몰두하며 살았던 자 아실현형의 어머니는 결혼한 딸들과 친구처럼 지내지만 음식을 차려주는 친구의 어머니를 부러워했던 세 딸의 이야기 사고로 아빠와 동생을 잃고 힘겹게 살아가는 어머니에게 치명적 상처를 남기고 후회하는 재수생 딸, 이혼으로 모녀 3대가 한 집에서 살지만 법적으로는 '동거인' 일 수밖에 없는 현실, 딸을 수시로 구타하는 남편과 이혼하지 못

하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어 증오하였으나 자신이 임신함으로써 비로소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희생했음을 뒤늦게 알게 되는 딸 '어머니와 딸'은 같은 여자로서 친구 같이 지내기도 하고, 한 때 어머니를 미워하고 거부했던 딸은 출산과 양육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어머니를 받아들이고 자신도 어느덧 그러한 어머니를 닮아간다.

언제나 당당하고 큰소리치는 아버지인줄 알았는데 어느 날 쓸쓸한 뒷모습의 아버지를 보며 측은함을 느끼는 장남, 어린 줄만 알았던 아들이 어느덧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며 서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된 것에 흐뭇해하는 아버지, 학생운동으로 수감되어 끝내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해 그것이 한이 되어 괴로워하는 아들, '아버지와 아들'은 대체로 대화를 하지 않고 서먹하게 지낸다 가정에서 무조건 권위적인 아버지가 아들은 못마땅하고 아버지는 사춘기의 아들을 이해할 수 없고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는 아들이 불만스럽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내가 아들을 출산했을 때의 감격을 평생 잊지 못하며 자신의 대를 이어갈 아들이라고 든든해한다

'남편과 아내' 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부부들이 그들의 결혼생활과 부부관에 대해 속내를 토로하고 있다 많은 나이 차이 등 부조화로 여기는 통념 때문에 전쟁과 같은 사랑을 하다 결혼하여 아내를 위해 평생 모든 것을 바치고 싶다는 8살 연하의 남편, 결혼한 후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불임치료를 받으며 아이가 생기면 놀이공원에 가는 것이 소원인 부부 아이를 갖지 않고 삶의 여유를 누리면서 자신들의 일에만 투자하며 만족하게 사는 부부 은행 노조 파업 주동 혐의로 수감되었을 때 면회 오던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죄책감과 함께 아내를 그리워하는 남편,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서로에게 설렘을 갖고 살아가는 중년부부는 부부란 마음의 그리움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중년부부 그리고 혼전동거부부 및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맞벌이 부부의 일과 사랑 이야기가 이어진다

김 동 자 도서실장

2003년 11월 자원봉사자

현관 안내 해 주신

강순임, 강신일, 강영봉, 고광례, 김한미, 박찬숙, 오영순, 이상옥, 이수옥, 이옥순, 이현숙, 전덕열, 전원순, 함화영, 홍순호, 홍진범, 황온선 님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강재덕, 고옥주, 김남숙, 김인숙, 김정혜, 노희자, 박선화, 백미도, 심무순, 안현숙, 유문숙, 이봉옥, 이승민, 한정희, 함영익, 황인경 님

교육원을 도와주신

박요순 님

도서실 작업을 도와주신

손상희, 김지희, 민경아, 김 영, 서경희, 이정연, 방수경, 공선영, 정경미, 김지현, 김미림, 강미영, 김해용, 이경실, 엄희정 님

주간상담을 해 주신

한수자 선생님, 함정민, 장보식, 권기섭, 이길연, 이호창, 김경환, 김병주, 홍명호 변호사 님

야간상담을 해 주신

임주용, 홍승기, 문영택, 김정임, 이남진, 김문주, 최정식 변호사 님

후원

일반회원이 되신 분

김한미, 구본경 님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남산교회, 오은경 님

도서후원금을 주신 분

이삭희 18, 25기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2천원씩 또는 년 2만원, 평생회원은 3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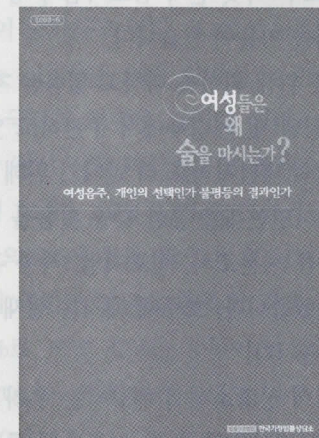
한미은행 101-50446-244 가정법률상담소
우리은행 085-003398-01-006

연락처 780-5688 사무국

상담소에서 한 일



▲11월 13일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주최로 열린 호주제 관련 공청회에서 본소 광배희 소장과 백인변호사단 정미화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했다



▲11월 27일 본소 6층 강당에서 열린 여성음주문제 심포지엄



▲본소 자원봉사자 한수자 박사가 지난 12월 3일 열린 2003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